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팔이 내려오기 前 상체 회전하면 혹 발생

■ 다운스윙 이렇게

합평골프고 출신으로 한국 여자프로골프(LPGA) '지존' 신지애가 상반기 국내에서 4승을 올린 후 국내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신지애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6위에 올랐던 경험을 살려 대회 개막 1주 전부터 현지에서 커디션을 조절 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도 우승한 신지애는 시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대회에도 자주 출전 할 전망이어서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일본과 미국 등 세계에 한국골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신지애에게 박수를 보낸다. 슬로우 스타터로 후반과 연장에 강한 점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닮은데다 집중력과 샷이 좋아 조만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낭보가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이번주 골프클리닉은 문은주(여·45·화순군 화순읍)씨가 찾았다. 구역 4년의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싱글골퍼인 문 씨는 매일 연습장을 찾을 정도의 골프 매니아. 여성 티에서 플레이를 할 경우 70대 중반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남자들과 같이 레귤러 티에서 칠 경우 80대 초·중반의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의 상급 골퍼.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악성 흙때문에 고생이 심하다며 골프클리닉을 노크했다.

김진철 프로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골프 시작한지 4년만에 70대를 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프로는 문 씨의 어프로치 점검부터 시작했다.

문 씨는 심을 골퍼다운 정확한 샷을 보였지만 김 프로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김 프로는 문 씨가 짧은 거리 어프로치 때도 체중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짧은 거리 어프로치는 체중이동이나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는 항상 체중을 미리 원발에 두고, 핸드퍼스트 자세를 취한 후 다운스윙으로 공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자신이 어드레스때 체중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치기 힘들다며 김 프로의 지적대로 핸드퍼스트와 팔로 하는 짧은 어프로치 감각을 익혔다.

김 프로는 "상급 골퍼들 중에는 자신의 샷 감각을 잘알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히 하다 보니 손목을 사용하거나 공을 펴울려서 그린에 올리는 자신들이 모든 동작을 많이 보게 된다"며 "문씨도 억지로 공을 펴우지 말고 클럽 각도를 믿고 다운스윙을 하면 공은 자연스럽게 뛰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씨는 어프로치 원포인트 레슨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됐다. 문 씨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문 씨의 아이언 샷을 지켜보던 김 프로는 악성 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프로는 문 씨가 어드레스에서 스트롱그립을 잡는데다 클럽페이스를 닫고 치기 때문에 티에서 페이스를 닫혀 악성 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



어드레스에서 스웨이로 된 클럽페이스와 티에서 올바른 클럽 페이스 방향.

다.

김 프로는 또 문 씨가 테이크 백에서 손을 곧바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티에서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운스윙에서도 몸통이 먼저 열리면서 팔이 내려오기 때문에 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프로의 설명을 듣던 문 씨는 "다운스윙에서 김 프로의 지적대로 클럽 그립 끝이 리드하는 스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상체가 터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프로는 "문 씨의 지적처럼 다운스윙에서 하체가 리드하면서 몸통의 터이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팔이 내려오기 전에 상체가 돌아가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문 씨의 어드레스때 체중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치기 힘들다며 김 프로의 지적대로 핸드퍼스트와 팔로 하는 짧은 어프로치 감각을 익혔다.

김 프로는 하체의 리드가 있는 후 원 영성이 회전을 일으키면서 양 팔이 겨드랑이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리띠 근처를 지나는 케도를 그리며 같이 운동이 돼야 하지만 문 씨의 경우 팔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상체가 돌아가버리는 소위 '트렁크 터' 현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어드레스에서 닫힌 클럽페이스는 티에서도 닫혀있게 돼 악성 흙을 유발하게 된다.

김 프로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문 씨는 예전 자신의 스윙이 김 프로의 지적에 맞았으나 최근 스윙을 개조하면서 이상하게 변했다면서 김 프로의 원포인트 대로 상체가 미리 돌아가는 현상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언 샷 악성 흙의 원인을 파악하게 된 문 씨는 드라이버 샷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도 부탁했다.

김 프로는 문 씨의 드라이버에 대해 나무랄 데 없는 샷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역시 다운스윙에서 몸통의 과도한 움직임을 수정하도록 지적했다.

특히 김 프로는 손목과 어깨 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연습으로 두발을 모으고 샷을 하는 연습방법을 소개했다. 김 프로는 이 연습은 코킹과 어깨 터, 균형감각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정·지도=김진철 (KPGA 프로)

몸통이 먼저 회전하고, 팔이 늦게 따라와 악성 흙이 발생하는 잘못된 스윙.

체중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을 치고 난 후에 오른발에 체중이 남은 잘못된 피니쉬 동작.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빛고을옛날순대국밥
북구 중흥동 북구청건너 향토문화센터옆
순대국밥전문
대표 김복님
☎(062)514-2154

성민정보
북구 우산동 서방시장건너
휴대폰신규
번호이동보상
☎(062)522-8975

신진전기조명
북구 용봉동 호반@옆
조명공사 전기자재납품 인테리어공사
대표 임평선
☎(062)526-3664

그대곰탕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 교보생명옆
곰탕, 주어탕전문
대표 김재권
☎(062)525-6248

현대당구클럽
북구 중흥동 현대백화점건너 2층
포켓볼 삼구시구 친절하게 모십니다
대표 임동현
☎(062)531-3949

서봉풍수철학원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정문중간
사주, 궁합, 작명, 택일, 진로, 풍수지리
역리사 강민재
☎(062)267-0258